

대세는 시즌제? ...예능 변화의 바람 분다

MBC 간판 예능 '무한도전' 시즌제 논의

휴식기 없이 10년 방송...피로 누적 호소

케이블 '알쓸신잡' '효리네민박' 등 인기

지상파 새방송 패턴 적용하기 고심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이 12년 만에 겨우 논의를 시작했을 정도로 국내에서 '시즌제 예능'은 아직 요원한 시스템으로 보인다.

케이블과 지상파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다수 예능이 휴식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고, 간혹 '새 시즌'이라며 숫자를 바꿔 단 프로그램들도 공백 없이 포맷이나 출연자만 바꾼 경우가 대다수다.

'무한도전'이 속한 MBC도 '위대한 탄생'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토크쇼나 리얼 버라이어티 예능에서는 시즌제가 거의 전무했다.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복면가왕' 등이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이상 방송을 이어왔다.

이에 최근 파업 후 새로 취임한 최승호 사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능에 시즌제를 도입하겠다. '무한도전' 등 기존 프로그램도 검토 대상"이라고 예고했다. '무한도전'의 김태호 PD를 비롯해 다수 제작진이 피로 누적을 호소해온 탓이다.

KBS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간판 예능 '해피선데이-1박2일'은 현재 시즌3라는 이름을 달고 방송 중이지만 시즌이 바뀔 때마다 공백은 거의 없었다. 덕분에 2007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방송한 시즌1은 무려 '232부작', 2012년 3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방송한 시즌2는 '89부작'이라는 웃지 못할 숫자도 나왔다.

KBS 관계자도 11일 "'1박2일'은 내부 편의를 위해 시즌 숫자를 나눠놓은 것과 다름없어 시즌제 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시즌제 예능을 꼽자면 '언니들의 슬램덩크'와 '살림하는 남자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니들의 슬램덩크'는 시즌 간 간격이 2개월, '살림하는 남자들'은 보름에 불과했다.

SBS는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동상이몽'과 '싱글와이프', '판타스틱 듀오' 등 주요 예능이 시즌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시즌2에서 전성기를 맞은 '동상이몽'은 시즌1이 2016년 7월 종영했고 시즌2는 1년 후 다른 포맷으로 시작했다. '싱글와이프'와 '판타스틱 듀오'도 최소 3~4개월의 재제작 기간이 보장됐다.

그러나 주말 대표 예능인 '런닝맨'이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나오는 '3대전왕', '푸드트럭', '골목식당' 시



리즈 등 다수 예능이 공백 없이 방송 중이다.

지상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편성이 자유로운 케이블 채널의 경우 방식은 다양해도 시즌제 운용이 자리 잡은 분위기다.

tvN을 대표하는 나영석 PD의 '꽃보다 청춘', '삼시세끼', '신서유기',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시리즈와 '윤식당'은 시즌제 성격이다.

물론 나 PD의 이름을 내건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면서 방송 중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최근에는 후배들에게 재량을 많이 주면서 시즌마다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나 PD 예능 외에도 '김부명을 찾아라', '소사이어티 게임', '동지탈출'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들이 재제작 기간을 갖고 포맷을 조금씩 변경해 새 시즌을 선보이고 있다.

이기획 tvN 콘텐츠편성전략팀장은 "휴식기가 보장되

는 시즌제 예능은 방송 기간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 더욱 프로그램에 집중할 힘을 준다"며 "예전보다 시청자의 눈높이가 높아져 제작진으로서도 매주 쉬지 않고 제작하는 것은 부담이다. 시즌제는 장기 프로젝트 등 기획 시간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즌제로 가면 일년 내내 지속하는 프로그램보다 광고 수익이 불안정하다는 우려도 있지만 단기간에 집약된 매출을 달성할 수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예능 시즌제가 지상파를 포함해 국내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게 전망이 적지 않다.

한 지상파 방송국 PD는 "시청률이 보장되고 광고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휴식기란 쉽지 않다"며 "경영진 결단과 시청자들의 새 방송 패턴 적응,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한데 아직은 둘 다 요원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올 설 연휴...예능보다 올림픽

지상파 3사 평창동계올림픽 중계에 집중

KBS 파일럿예능·특선영화 편성 전무

MBC·SBS 1~2개 예능만 방영 예정

올해 지상파 3사 설 연휴 특수는 파일럿 예능들이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다.

세계인의 이목이 평창에 쏠린 가운데 3사는 예년과 달리 예능과 특선영화는 최소화하고 올림픽 중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KBS는 특히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과 특선 영화 편성 계획이 전무하다. 1TV와 2TV 모두 한국 선수들이 출전하는 경기 중계에 집중하는 게 목표다.

특히 설 연휴가 시작되는 15일부터는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같은 인기 종목들의 메달 결정전이 연이어 있어 그야말로 '대목'이다.

KBS 관계자는 10일 "1TV와 2TV 두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종목 중계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MBC도 올림픽 중계에 집중할 계획이지만 '큰 행사' 두 건이 있다. 지난 추석에 노조 파업으로 방송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돌아오는 '아이돌스타 육상 불링 양궁 리듬체조 에어로빅 선수권대회'(아육대)와 '무한도전'의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토토가3)'이 그 주인공이다.

올해로 9년, 횡수로는 15회를 맞은 '아육대'는 15일 오후 5시 40분 1·2부, 16일 오후 5시 10분에 3·4부를 방송한다. 진행은 지난해 MBC 연예대상을 거머쥔 방송인 전현무와 슈퍼주니어 이특, 에이핑크 보미가 맡았다. 특히 신설된 불링 종목에는 평소 '불링 마니아'로 알려진 예소, 하이라이트, 워너원이 출전해 관심을 끈다.

H.O.T의 출연으로 일찌감치 큰 화제를 모은 '무한도전'의 '토토가3'는 설 연휴 중인 17일 밤 10시 25분에 1부가 방송된다. 2부는 24일 밤 10시 40분 방송 예정이다. 방송에는 17년 만에 한 팀으로 뭉친 H.O.T 멤버들의 연습 과정과 15일 잠실 올림픽홀에서 있을 공연 모습이 담긴다.

SBS 역시 올림픽 주간 방송사로서 경기 중계에 전념할 계획이지만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과 특선영화를 하나씩 준비했다.

파일럿 예능은 전현무와 모델 한혜진이 MC로 나서서 '로맨스 패키지'로, 16일 오후 8시 35분과 17일 오후 11시 10분 양일간 2부작으로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도시 남녀들이 주말을 이용해 3박 4일간 호텔에서 각종 일과 미션을 소화하며 자신의 짝을 찾는 내용이다.

특선영화로는 배우 이성민과 조진웅 주연의 '보안관'이 16일 오후 5시 20분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코미닝 평창	20 광중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생방송 아침이 좋다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타즈
9	30 KBS 뉴스 40 평창올림픽 라이브 <컬링/스노보드>	00 TV 소설 <파도야 파도야> 50 여기는 평창 <피겨 스케이팅 팀이벤트 /알파인 스키>	30 930 MBC 뉴스 45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알파인스키/스노보드>	10 평창 2018 <피겨 스케이팅/아이스댄스 /알파인 스키/컬링/스노보드>
10				
11			55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단체전>	
12	00 KBS 뉴스 12 40 열린채널	00 여기는 평창 <피겨 스케이팅 팀이벤트>		
1	10 팔도방송 스페셜 20 평창올림픽 라이브 <알파인스키/스노보드>	30 영상앨범 산(재)	2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노보드/알파인 스키>	15 SBS 뉴스 25 평창 2018 <알파인 스키/스노보드>
2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3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40 사이닝스타	
4	00 4시 뉴스집중	00 라디오 로맨스(재)	10 문화사색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스페셜 30 팔도방송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5 MBC 뉴스 15 다시 만나는 하얀겨울 UHD(재) 50 생방송 빛날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2TV 생생정보	55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프리스타일스키>	0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재)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00 여기는 평창 <바이애슬론/프리스타일 스키>		00 평창 2018 <프리스타일 스키>
8	25 미워도 사랑해	50 여기는 평창 <[미스터리] 여자 B조 코리아 : 스웨덴 1 : 10-23 : 25 *남북한 단일팀>	00 MBC 뉴스데스크 55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스피드스케이팅>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평창 2018 <프리스타일 스키 /스피드스케이팅>
9	00 KBS 뉴스9 40 평창올림픽 라이브 <스피드스케이팅/루지 /프리스타일스키/스키점프>			45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0				
11	30 KBS 뉴스 40 월요기획	30 안영하세요	10 다시 만나는 하얀겨울 UHD	
12	3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55 사랑의 가족 (재)	20 평창동계올림픽 하이라이트 평창, 우리의 밤	05 평창 투나잇 35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15 꼬마기사 마이크	20:40 아이 오픈(Eye-opener) <달걀>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래일 캐니언랜드, 아이스세도나>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5:30 오드북, 이상한 아이들	20:5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에 살다 오스트리아 1부 고산의 설야외터우에른>
06:0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광어 미역국, 닭고기 두부조림>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21:30 한국기행 <겨울이던 고립무원 1부 세 일 클로버, 찾으실래요?>
06:2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00 엄마 까투리	21:50 EBS 다크프라임 <여름이던 고립무원 1부 세 일 클로버, 찾으실래요?>
07:00 허준씨 과학쇼	12:00 EBS 정오 뉴스	16:15 두다다쿵	22:45 엄마를 찾지만
07:30 로보카 폴리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23:35 까칠남녀
07:45 출동! 슈퍼맘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6:45 똥똥똥 유치원 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똥똥똥 유치원 1~2	12:45 과학 다크 비온드(재)	17:15 로보카 폴리	24:30 세계의 드라마 <차일드후즈 엔드 1부 지배자>
08:30 플라워링 하트	13:40 엄마를 찾지만(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토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4:30 똑딱맨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09:00 몬카티	15:00 우주탐험가 젯	19:00 로보 발명왕 라스티	
09:15 소피 루비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교부 열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2일(음 12월 27일 乙亥)

子	48년생 일방적이려면 무리함을 낳을 것인 즉 상호간의 유기적인 교류가 중요하다. 60년생 마음은 있으나 보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 72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84년생 망설이면서 저울질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22, 57	午	42년생 상당히 달라지겠다. 54년생 감정을 배제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 66년생 결정적인 시기에 맞춰서 행해야 한다. 78년생 일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느니라. 90년생 기존의 행태가 반복되는 정황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78, 14
丑	49년생 허을 좋은 겹데기 앞에서 한 없이 희의를 느끼게 될 수도 있는 도량이다. 61년생 생기를 띠면서 발전적인 국면으로 진입하는 경로이다. 73년생 관리에 철저해야겠다. 85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견뎌낸다면 희망찬 미래를 연다. 행운의 숫자 : 40, 47	未	43년생 잘 활용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다. 55년생 조금만 더 애쓰면 원하는 성과가 도출되리라. 67년생 의지없는 상권없는 상태가 된다. 79년생 총동적인 판단이었다면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91년생 처음부터 신중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46, 77
寅	50년생 일체유심조이거늘 같은 대상을 두고도 인식을 달리한다면 일취월장한다. 62년생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니라. 74년생 일정하지 않으니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낫다. 86년생 막혔던 바가 시원하게 뚫릴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51	申	44년생 요령 없는 대응은 보잘 것 없는 결과를 낳는다. 56년생 암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 하느니라. 68년생 형국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원년부터 인식하라. 80년생 인행을 무겁게 하되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97, 72
卯	51년생 성심으로써 물리칠 수 없는 곤란은 거의 없느니라. 63년생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하므로 이르다고 생각할 때에 시작하자. 75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 되느니라. 87년생 결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행운의 숫자 : 77, 44	酉	45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57년생 반복한다거나 획일적이려면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어 질 것이다. 69년생 불편하다면 빨리 청산해야 마땅하다. 81년생 남치는 것 보다는 부족한 듯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겠다. 행운의 숫자 : 29, 10
辰	52년생 낮게 책정하는 것이 지출을 최소화하리라. 64년생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과 공간에서 인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길인을 만나리라. 76년생 첫 술에 배부르랴? 88년생 엮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86, 02	戌	46년생 풍성한 소득을 가져오는 성공의 마당이다. 58년생 약간만 활용해도 뛰어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70년생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될 것이니 신기할진 하자. 82년생 불확실한 것을 버리고 확실한 것만 취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06, 86
巳	53년생 특강이서는 발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65년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옳다. 77년생 당장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조금씩 서두르지 말라. 89년생 일시적인 총동 심리에 기인한다면 오래가지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2, 13	亥	47년생 시기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지겠다. 59년생 파충은 힘들 지라도 결실의 기쁨은 클 것이다. 71년생 규모가 커지면서 점점 세분화되는 판국이다. 83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20, 5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